

보도자료

보도일시	2025년 12월 17일(수) 14:00
배포일시	2025년 12월 17일(수) 09:00
배포부서	KDI 홍보팀(044-550-4030, press@kdi.re.kr)
담당자	하호정 KDI국제정책대학원 혁신실장 (044-550-1290, hjhj@kdischool.ac.kr) 최하나 KDI국제정책대학원 대외협력팀 선임전문원 (044-550-1172, hj_choi@kdischool.ac.kr)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KDI국제정책대학원 2026 NRC 미래전망대회 개최 -APEC 경주 선언 이후 한국의 발전 전략-

- 일 시: 12월 17일(수) 09:00 ~ 17:00
- 장 소: 한국프레스센터 20F 프레스클럽

- KDI국제정책대학원(원장 김준경)은 12월 17일(수)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이한주)와 함께 「2026 NRC 미래전망대회」를 개최
 - 이번 대회는 2025 APEC 경주 선언 이후 급변하는 국제 환경을 배경으로, 기술패권 경쟁, 인구구조 변화, 경제안보 재편이라는 구조적 전환기에 한국이 직면한 국가 전략과제에 대한 종합적 논의를 목적으로 개최
- 김준경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기술·인구·경제안보라는 거대한 구조 변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시기에 한국은 산업·사회 시스템 전반의 전략적 재정렬이 필요하다”라며, 이번 논의가 국가 전략 수립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힘.

- 이한주 이사장은 환영사를 통해 “2026년은 대한민국이 추격자(Fast Follower)가 아닌, 글로벌 선도국가(First Mover)로 도약할 수 있는 ‘대전환의 변곡점’으로 미래를 적극적으로 설계하는 능동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밝힘.
- 오전 세션은 문명재 연세대학교 교수(기획평가위원회 위원장)가 좌장을 맡고, 기술패권, 인구구조, 경제안보를 주제로 모정훈 한국경영과학회 회장(연세대 산업공학과 교수), 이철희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인구클러스터장(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이준 산업연구원 부원장이 기조 발표를 맡아 한국이 직면한 거시적 구조 변화와 대응 방향을 다각적으로 논의
 - 모정훈 교수는 AI를 ‘21세기 기술패권의 핵심’으로 규정하며, 미·중 전략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한국은 반도체 분야에서 강점을 보유하고 있으나 전력 인프라·AI 인재·알고리즘·시스템 역량에서 구조적 취약성이 존재한다고 지적
 - 전력 인프라 재정비, 반도체 전략 자산화, AI 인재 확보, 한국형 효율 AI 육성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AI는 산업을 넘어 국가 체제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전략적 의제임을 강조
 - 이철희 교수는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출생아 수 감소와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국가라며, 교육 경쟁과 사교육비, 주거비 부담, 청년층 일자리 질 저하 등 구조적 요인이 저출산을 지속적으로 심화시키고 있다고 진단
 - 인구 변화가 지역 인프라 붕괴, 노동력 부족, 산업·직업별 불균형 등 전 사회적 충격을 초래할 것이라며, 구조적 문제 해결과 노동시장에 적합한 AI·로봇 활용 전략, 역량 기반의 유연하고 포용적인 사회 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
 - 이준 부원장은 팬데믹과 지정학적 갈등을 계기로 글로벌 산업 질서가 ‘경제안보 시대’로 전환되고 있다며,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주요국이 반도체·배터리·핵심 광물에 대규모 산업정책을 집중하고 있다고 분석
 - 한국은 효율성 중심의 중간재 공급망 구조로 인해 중국발 공급망 리스크에 구조적으로 취약하지만, 첨단 반도체, 이차전지 분야에서는 대체 불가능한 전략적 우위를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

- 한국이 당면한 저성장과 대외 압력을 산업 구조 혁신의 추진력으로 극복해야 하며, 초격차 기술 확보, 투자 위험 흡수, 통합 산업정책 협력체계 구축 등이 향후 생존 전략의 핵심이라고 강조

□ 오후에는 2026년을 규정할 핵심 글로벌 이슈를 분야별로 전망한 발표를 진행

- 경제·산업·기술, 외교·안보, 문화·관광, 행정·거버넌스, 사회·교육·노동, 인프라 등 6개 분야 전문가가 참여해 국제 정세 변화와 한국의 중장기 대응 방향을 제시
- 특히 AI, 에너지 전환, 공급망 재편, 노동시장 구조 변화 등이 전 세계적 변화의 큰 흐름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는 전망이 공통적

□ 종합 토론에서는 부문별 전망을 종합한 국가 차원의 전략적 대응체계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며, 특히 AI·에너지·공급망·인구구조가 향후 10년간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분야로 지목

□ 이번 행사의 전체 영상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KDI국제정책대학원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순차적으로 업로드될 예정

- ❖ 첨부 1. 세부 일정 및 프로그램
- ❖ 첨부 2. 콘퍼런스 포스터
- ❖ 첨부 3. 오후 세션 분야별 주제 발표 요지
- ❖ 별 첨. 개회식 현장 사진 (17일(수) 13:00 배포)

❖ 첨부 1. 세부 일정 및 프로그램

시 간	내 용
	개 회 식
09:30 ~ 09:45	개 회 사 김준경 KDI국제정책대학원 원장 환 영 사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09:45 ~ 10:00	기념사진 촬영
	기조세션: APEC 경주 선언 이후 한국의 발전 전략
10:00 ~ 11:40	발 제 ① 기술패권 경쟁과 AI, 한국의 선택 모정훈 한국경영과학회 회장 (연세대학교 산업공학과 교수) 발 제 ② 인구구조 변화와 한국의 미래 전략 이철희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발 제 ③ 경제 안보와 한국 산업의 발전 전략 이 준 산업연구원 경영부원장 종합토론 (40분) 좌 장 문명재 기획평가위원회 위원장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11:40 ~ 13:00	오 찬
	2026 부문별 글로벌 이슈 전망
13:00 ~ 14:00	발 제 ① 경제·산업·기술 윤상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발 제 ② 외교·안보 박정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발 제 ③ 문화·관광 이윤경 한국문화관광연구원
14:30 ~ 15:30	발 제 ① 행정·거버넌스 윤지영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발 제 ② 사회·교육·노동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발 제 ③ 인프라 박해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종합 토론
15:45 ~ 17:00	좌 장 서중해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패 널 김석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류 철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민태은 통일연구원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 첨부 2. 콘퍼런스 포스터

2026 NRC 미래전망대회

2025.12.17.(수) 9:00-17:00
한국프레스센터 20F 프레스클럽

주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주관: KDI SCHOOL

시간	내용
9:00-9:30	등록 개회식
9:30-9: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회사 김준경 KDI국제정책대학원 원장 • 환영사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9:45-10:00	기념사진 촬영 기조세션
	APEC 경주 선언 이후 한국의 발전 전략
	<p>발제 (총 60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제1 모정훈 한국경영과학회 회장 (연세대학교 산업공학과 교수) [20분] - 기술 패권 경쟁과 AI, 한국의 선택 • 발제2 이철희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20분] - 인구 구조 변화와 한국의 미래 전략 • 발제3 이준 산업연구원 경영부원장 [20분] - 경제 안보와 한국 산업의 발전 전략
	<p>종합토론 (총 40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장 문명재 기획평가위원회 위원장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11:40-13:00	오찬
	2026 부문별 글로벌 이슈 전망
13:00-14: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산업·기술 윤상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분] 외교·안보 박정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분] 문화·관광 이윤경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분]
14:00-14:30	Break
14:30-15: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정·거버넌스 윤지영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분] 사회·교육·노동 정지연 한국노동연구원 [20분] 인프라 박혜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분]
15:30-15:45	Break
	종합토론
15:45-17: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장 서중해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 패널 김석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민태은 통일연구원 류철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본 행사는 YouTube 를 통해서 실시간 생중계 합니다

❖ 첨부 3. 오후 세션 분야별 주제 발표 요지

- **(경제·산업·기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윤상하 국제거시금융실장은 2026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3.0%로 전망하며, 올해의 핵심 키워드를 '완충된 둔화, 비대칭의 시대'로 제시했다. 그는 코로나19 이전보다 낮은 저성장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판단했다. 공급망 재편, 수출 다각화, 마진 흡수, AI 등 투자 요인이 관세 충격을 부분적으로 상쇄하겠지만, 관세 및 무역 질서의 급격한 변화, 재정여력 약화, AI 투자 쏠림은 주요 리스크로 꼽혔다. 금리는 하향 안정될 가능성이 크고, 달러는 점진적 약세를 보이며, 유가는 공급 확대의 영향으로 하방 압력이 우세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2026년에는 선진국과 신흥국 간 회복의 비대칭성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가별 예상 성장률은 미국 1.6%, 유로지역 1.1%, 일본 0.6%, 중국 4.2%, 인도 6.5%, 아세안 4.7%, 러시아 1.0%, 브라질 1.8%로 제시됐다.
- **(외교·안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박정호 러시아유라시아팀장은 2026년 글로벌 정세 전망에서 유라시아 및 한반도 외교 환경의 변화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발표된 트럼프 2기 미국 국가안보 전략의 핵심 내용을 바탕으로 미국의 글로벌 이슈 대응 방향을 소개했다. 이어 2026년 외교·안보 분야의 주요 쟁점으로 러·우 전쟁의 종식 여부, 미·중 정상회담,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 등을 제시했다.
- **(문화·관광)**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이윤경 콘텐츠연구본부장은 한류 도약 이후 한국 콘텐츠산업이 글로벌 OTT 중심의 제작·유통 구조 변화로 IP 주도권 약화와 수익구조 불안정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제작비 조달 격차, 고비용·고위험 구조로 인해 핵심 자산의 외부 유출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콘텐츠 가치 고도화와 연관 산업 확장을 연계한 미래형 IP 생태계 구축이 지속 성장을 위한 핵심 전략이라고 강조하며, 단계별 권리 관리 체계 정비와 다양한 동반 진출 모델 마련이 한국 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필수적이라고 제언했다.
- **(행정·거버넌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윤지영 사법개혁연구본부장은 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감금·살인 사건을 계기로 초국가적 스캠 범죄가

단순 사기를 넘어 역내 안보 위협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통적 조직 범죄 거점이던 골든트라이앵글 지역은 느슨한 법 집행과 특별경제구역의 허점을 기반으로 스캠 허브로 빠르게 전환되었으며, 범죄는 특정 단지 중심에서 셀 단위로 분산·은폐되는 구조로 재편되고 있다. 스캠 조직은 AI, 딥페이크, 암호화폐 등 신기술과 결합하며 국경을 넘나드는 고도화된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어 기존 외교 경로 중심 사범공조 체계의 한계가 분명히 드러난 만큼, 신속한 정보 공유, 상설 공조기구 구축, 역외 관할권 검토 등 새로운 국제사범공조 체계의 재정립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 **(사회·교육·노동)** 한국노동연구원 장지연 선임연구위원은 기술 발전이 역사적으로 고용 총량을 감소시키지 않았으며, AI 역시 고용을 축소한다는 명확한 근거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전환기의 징후는 나타나고 있으며, 생성형 AI 확산 이후 청년층 고용이 감소하고, 특히 AI 고노출 직업군과 정보통신업에서 그 영향이 두드러진다고 분석했다. 이는 기업이 기존 인력 감축보다는 신규 채용 축소로 대응하는 경향을 보여주는 것으로, 향후 일자리의 성격 변화가 불가피하고 그 영향 또한 직종·인구집단별로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또 AI 노출이 높더라도 자동화로 이어질 수도, 증강으로 이어질 수도 있으며, 사무직·판매직은 자동화 가능성이, 전문직·관리직은 증강 가능성이 높게 나타난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기술적으로 대체 가능하더라도 책임성과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할 때 실제 대체 가능성은 달라질 수 있어, 사회적·제도적 조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인프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박혜리 해사산업·안전연구실장은 전 세계적으로 해운·조선·항만 산업은 디지털 전환과 함께 AI 자율운항 선박의 시대로 전환 중이며, 아시아·태평양 지역 중심의 글로벌 자율운항 선박 시장의 성장을 고려해 전략적인 접근과 전략기술 중심 기술개발, 상용화 지원, 국제표준 선도 등 중장기 과제를 강조했다. 우리나라 역시 K-해양강국 건설을 위한 초혁신 기술력 확보 및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정책을 적극 추진 중이며, 미래 자율운항 선박 상용운항을 위한 선제적 준비가 필요한 시점임을 지목했다. 이에 피지컬 AI,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 활용 선박운항 기술 고도화, 글로벌 시범운항 등으로의 점진적 전환 및 실수요 중심의 단계적 접근, 미래기술 신뢰성 기반의 사회적 수용성 확보 등의 미래 과제를 제시했다.